

전남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 도약 속도낸다

광양서 첫 '청정수소국제포럼'...수소산업 발전 모색 16개 기관 여수·광양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협약도

전남도는 4일 광양 성황스포츠클럽에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처음 열린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은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양시·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에너지기업·연구기관·학계 관계자, 대학생,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수도 전남'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선 문제도(사)에너지밸리포럼 대표가 '국내 수소 정책 및 전망'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탈리아 안젤로모레노 H2IT 이사과 일본 요스케 후지이 NEDO 책임연구원이 각각 '이탈리아 수소정책 및 유럽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현황', '일본 수소기반전략 추진현황 및 한-일 협력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한중희 한국에너지경제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수도 전남'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여수·광양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 주도로 여수·순천·광양, 여수산단 기업 및 한국남동·동서·서부발전 3개 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광양만권의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육성·발전 등 전남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김영록 지사는 "광양만권 화학·철강 중심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 동·서부권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과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발전단지를 조성, 전국 최초 청정수소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겠다"며 전남을 글로벌 수소경제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도는 지난 10월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에너지위크'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에도 가입했다"며 "글로벌 에너지시장 개척, 세계 지방정부와 협력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4일 오후 광양 성황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등 내빈들이 광양만권 수소배관망 구축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수요조사

전남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2025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산업 분야 수출(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농산업 분야 스마트 제조공장 솔루션을 구축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당 최대 4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비 2억원과 기업 부담금 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종자, 농약, 동물용 의약품, 펫푸드 등 농산업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수출을 이미 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13일까지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후 고독사 감소

박미정 시의원 “지난해비 20% 줄어”

광주시 대표 복지 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고독사 예방에도 특효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고독사 발생이 통합돌봄이 시작된 지난해에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었다"며 "통합돌봄 시행이 고독사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의무방문제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기존 돌봄에서 소외된 대상자를 발굴하고 7대 영역 전문적 돌봄서비스 1만1천45건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 조사에 따

르면 광주지역 고독사는 ▲2019년 113건 ▲2020년 118건 ▲2021년 111건 ▲2022년 117건이었지만 통합돌봄이 시행된 2023년에는 94건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고독사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회와 단절을 경험하고 사회관계망 약화로 고독한 삶을 산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대면 접촉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에 5개 자치구 특화사업까지 반영됐다"며 "사람이 사람을 지키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경기자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준비 지지부진”

윤명희 도의원 “내년 9월 개최에도 조직위조차 없어”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최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미진한 준비 상황을 질타했다.

전남도는 미식과 다양한 사업 융합을 통한 남도음식 세계화를 위해 2025년 9월부터 한 달간 목포시 일원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기존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출연 기관인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현재 조직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았다"며 "비슷한 시

기에 국제 행사로 개최되는 2025 남도국제수목비엔날레는 총감독이 지난 10월 위촉되는 등 실질적인 행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비가 150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행사임에도 준비가 더딘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전의 한 분야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VDI 시스템 구축 철저히 준비해야”

김진남 도의원, 일·가정 양립 위한 환경 조성 주문

전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최근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VDI 시스템' 구축 준비를 주문했다.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시스템'은 회사 사무실 컴퓨터 환경을 그대로 구현해 재택근무나 출장 시에도 자료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현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중이며 원격지 근무 등 현장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VDI 시스템 활용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휴직률은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VDI시스템 설명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보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써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Panasonic
REAL PRO MAN1
KOREA 세일 페스타
MAN1 50만원DC + 상품권20만원 + 무선청소기

4년 무상보증 (1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안마의자 MAN1 구매고객 대상 50만원 DC + 상품권 20만원 + 무선청소기
기간: 2024.11.01 ~ 2024.11.30

MAK1	MAJ7	MAF1	MA32	MAC3	MAC9	MA22	MA05
------	------	------	------	------	------	------	------

※판매점에 따라 혜택은 다소 상이합니다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본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